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시울코리아 가 함께 응원합니다.

제 1315호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이상민 탄핵, 167일 만에 기각…현재 “사유 안돼”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이날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여당은 무리한 탄핵소

추를 추진한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유족과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

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현정사상 첫 탄핵 심판의 결론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

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사전 예방조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종양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혼자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혼자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

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장관의 일부 재난 대응조치와 사후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정경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사후 발언이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개 의견을 남긴 재판관들 역시 이 같은 잘못이 장관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장관의 ‘온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즉시 장관직에 복귀한 이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족들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송원기 기자

## 교사들, 29일에도 대규모 집회 예고…“교육환경 개선하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교사들이 29일에도 대규모 2차 집회를 예고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사들은 오는 29일 오후 2~4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주모식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주최 측 추산 5천여명이다.

앞서 22일에는 일반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최근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자발적 집회를 열었다.

29일도 마찬가지로 교직 단체나 노조의 개입 없이 일반 교사들이 운동장을 통해 공지된 일정을 바탕으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숨진 교사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검은색 의상을 입

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다.

교사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자발적 집회를 향한 자원봉사와 후원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2차 집회의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은 교사 200여명이 한꺼번에 지원하면서 조기에 마감됐다.

1차 집회 때 소요된 비용 400여만원을 채우기 위해 주최 측이 교사들에게 1인당 1천원씩을 모금했는데 하루도 안 돼 3천500만 원가량이 들어와 계좌 입금을 정지하기도 했다.

한편 2차 집회 주최 측은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인의 49재인”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끝내서는 우리는 또 고통을 혼자 삼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정윤 기자

## 尹대통령, 한국전 참전 룩셈부르크 90대 노병에 “건강해서 기뻐”

룩셈부르크 총리·참전용사 접견  
뉴질랜드 총독과도 면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방문한 룩셈부르크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가족을 만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90대 참전용사인 레옹 모아엠 씨와 가족을 초청해 “이제 6·25전쟁 정전 70주년이 됐다”며 “올해 이렇게 뜻깊은 해에 장시간 비행을 해서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자비에 베델 총리를 비롯한 룩셈부르크 정부 대표단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훨체어로 오실 줄 알았는데 보행보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걸어서 오시고, 무릎을 빼고 전부 건강한 모습이어서 정말 다행이고 기쁘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엠 씨가 강원 철원에서 전투를 벌였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묻기도 했다.



룩셈부르크 참전용사와 자리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면서 “처음에 총상을 입고 일본으로 후송이 돼서 치료받은 다음에 다시 참전하겠다고 해서 부상 치료를 받고 또 참전했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용기 있게 두 번이나 참전을 결심하게 되셨느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모아엠 씨는 “완전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생각난다”며 “4개월 동안 원쪽 다리에 부상이 있어서

입원했었는데 뼈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디 키로 총독을 비롯한 뉴질랜드 대표단도 접견했다.

이들 대표단은 국가보훈부가 정전협정 70주년과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을 앞두고 22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을 초청함에 따라 방한했다.

/ 조성은 기자

##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우대

(유관비용만 징수)

## 미국주식 수수료 0.07%

(1년간, 거래 시 1년 연장)

## 신용 이자율 (1~7일) 0%

(기간 초과시 구간별 이자율 적용)



고객감동센터 1588 - 4488

\*국내/미국주식 수수료 우대는 이벤트 신청자에 한하여, 신규/미개설 고객 대상입니다. (-2023.8.31)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계약(신용거래) 및 금융투자자산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또는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기회·변동, 험률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상환등록에 비해 출금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험금보증비 미달 시 기한 내 추가금보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回事권이 일시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이자율은 연 0%-9.5%로 자세한 내용은 당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는 0.1972959%로 매매일 1주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0.25~0.3%로 국가별/매매일 거래수수료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거래의 경우 매도 시 0.00088 거래세(SEC Fee)가 부과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사법 제23-02268호 (2023.06.23~2024.06.22)

## '과하지욕' 지우고 수해봉사…**與 내부 홍준표 징계 수위 주목**



수해복구 봉사활동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 시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에선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솜방망이' 징계로 비치면 전국적 수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 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다만 수위를 두고서는 의원들과 실제 징계를 심의·결정할 중앙당 윤리위원회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홍 시장 공개 사과와 수해봉사 활동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다소 낮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 의원들 '당원권 정지' 수준 징계 거론…윤리위 내부선 '제명' 가능성까지

#### 윤리위, 내일 소명 절차 거쳐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듯…홍준표 출석 미정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리위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봉사활동이 참작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예전처럼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

고 했다.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했지만, 17년이나 지난 만큼 굳이 전례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다.

반면 외부 인사 위주인 윤리위원회를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싸늘하다.

특히 징계 절차 개시 직후 홍 시장이 SNS에 적은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표현을 두고 반응이 냉랭하다. 홍 시장은 이후 이 표현을 지웠지만, 일부 윤리위원회는 이를 범미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 윤리위원회는 통화에서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으로, 상

당 권리,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 이상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 심사 등을 앞두고 올 하반기 당정 협의 등 일부 '집권여당 프리미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징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구 지역의 한 당내 인사는 "홍 시장이 아니더라도 대구는 그 자체로 여권의 '텃밭' 아닌가"라며 "큰 아쉬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홍 시장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 송영길, '장모 의혹 부인' 윤 대통령 검찰 고발

### 대선서 "장모, 사기당한 것" 주장…宋 "사과하는 게 상식"

송영길(60)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장모 의혹'을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령을 수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민

### 돈봉투 의혹은 여전히 부인…“조찬모임이 금품수수 증거되나”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76)씨를 둘러싼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다음 달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법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대입 수시 시작에 맞춰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유명 사립대의 협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학원강사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했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며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의혹도 수사하라며 고발장에 윤 대통령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당장 윤 대통

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차자 부인했다.

그는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박용수(53)씨를 두고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한

테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당연히 송영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 자국회사무처, 캠프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당대표 선거 후보자는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닌다.

조찬모임, 티타임이 무슨 금품수수의 증거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부장검사)는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오성현 기자

## 학원 돈 받고 킬러문항 만드는 교사 원천 차단…가이드라인 마련

### '대입 수시·여름방학 시즌' 컨설팅·입시캠프 편·불법 집중 점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단속은 지속하는 한편 다음 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법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직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파는 행위는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다.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리면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금품 수수가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교육청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 행위 금지 및 겹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집필 행위에 대해서는 겹직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방식이 포함된다.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가운데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협의회는 현장지도·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허위·

# 경기부동산포털 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건물명, 도로명, 지번등을 입력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세요

검색

「이사 갈 집이 깡통 전(월)세가  
의심된다면 검색하세요!」

### 이용방법

- 사용자가 지도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정보)"가 표시되며,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계약 전·후 할 일 및 깡통전세 유형정보 제공
-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바로가기 연결 (<https://consult.kapanet.or.kr>)



## 오세훈 “실패한 도시계획 강남 바꿀 것…선거부패 규제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은 실패한 도시계획이며 걷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치권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선거부패 문제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불체포특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은 녹지공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남을 계획할 때 어딜 가도 차를 타고 이동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길을 걷다가 비나 햇빛을 피하고 싶을 때 1만원, 2만원이라도 쓰고 커피숍이라도 가야 하는 구조로 계획됐다”면서 “외국 도시를 가보면 건물



오세훈 서울시장

적인 범위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민감한 구체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민이 비판해온 정치개혁 주제에 강한 목소리를 염두했다.

오 시장은 “10여년 전 ‘오세훈법’으로 이를 불여준 법을 바꿀 때 금전으로부터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법을 만들었다”며 “소규모 조직은 선거 시부에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차떼기’ 대선자금 논란이 불거진 당시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의 주도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외부에서 정당에 검은돈을 건네는 비리의 온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업 등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탁 금지 등의 정치개혁 내용을 담았다.

오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강력하



우리 해역 방사능 관리 현황 설명하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 정부 “수산물·평형수·해수욕장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안전’”

정부는 25일 올해 이뤄진 생산단계 수

산물 및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

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인근에서 입향한 선

박에 대한 평형수 조사, 국내 주요 해수욕

장 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

다고 전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올해 진행된 5천

447건의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

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천160건에서도 방

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었다”고 말했

다.

박 차관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계시

판 운영을 시작한 4월 24일 이후 총 127

건의 수산물을 선정해 116건의 검사를 완

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며 “11건에 대

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

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지바현, 이바라기 현, 미야기 현 등에서 입향한 선박에 대한 평형수 조사, 국내 주요 해수욕장 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경포·속초, 경북 영일대, 제주 중문색달, 경남 상주온모래, 전남 신지명사십리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사능 긴급 조사 역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주부터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곳에서 매주 방사능 긴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결과가 공개된 6곳을 포함해 총 10곳의 조사를 완료했다.

해수부는 민간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과 이마트는 지난 14일 수산물 안전 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흥명섭 기자

## SBS 라디오 인터뷰…“불체포특권은 왕정시대 개념…민주국가 존치 맞지 않아”

### 과거 ‘오세훈법’ 주도…“당내·소규모조직 선거부패 가능성…규제 제도화해야”

1~2층은 파고들도록 설계해 자유롭게 쇼핑하면서 걷기가 매우 편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짓는 건물은 들어 올려서 1층에 녹지를 만들고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탱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면적을 넓혀 시민이 일상에서 녹지공간을 활용해 걸어서 출근하고 걷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일본 출장에서 ‘서울 대개조’를 언급하며 도심부 재개발 시 용적률과 높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시민 모두가 이용할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대개조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도시재생은 넓은 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큰 피해를 남긴 극한호우와 관련해선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문제가 된 진입 차단설비를 이제 점검하니 63곳이 (미설치돼) 있는데 급한 대로 신호등 형태의 간이 전광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불체포특권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도 제한

계 규제할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걸 제도화해서 금권선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선거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불체포특권 포기 움직임에 대해선 오 시장은 “불체포특권은 왕권 시절에 제왕적 (권한 행사로 인함)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의원의 신분을 보호해 할 말은 하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에 남아있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회 분위기가 잡히는 듯하다.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 공모가 1만5천원 ‘국민주’ 포항제철 부활…68만원대까지 뛰어

역사적 최고가는 2007년 10월 76만5천원…시총 66조6천970억원 달해

**posco  
holdings**

원 수준으로 코스피에서 5.27%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에 자리를 내주며 2016년 연초에는 20위까지 주저앉았다.

POSCO홀딩스의 올해 초 시총 순위를 보면 현대차(8위), NAVER(네이버·9위), 기아(10위), 카카오(11위), 다음의 12위에 머물다가 현재 4위까지 뛰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포스코그룹이 철강에서 이 차전지로 체질을 전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기대감이 높아져 할증(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며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심리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포스코와 같은 체질 전환 기업들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POSCO홀딩스 목표주가를 최고 90만원까지 올려잡았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POSCO홀딩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로 높이고 목표주가를 기존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면서 “5년간 펼쳐질 압축 성장과 이차전지 업체 가치평가(밸류에이션)를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POSCO홀딩스는 제1의 국민주라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개인들이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본다”며 “1988년 최초의 국민주 포항제철이 35년 만에 최고의 국민주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그룹이 이차전지 사업 쪽으로 2030년까지 로드맵을 확정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DX 등도 신규 사업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POSCO홀딩스에 새로 제시한 목표주가는 BNK투자증권(85만원), 삼성증권(80만원), NH투자증권(75만원), 현대차증권(74만5천원), 하나증권(74만원), 유진투자증권(74만원), 키움증권(73만원) 등 순으로 높다. 반면 교보증권은 목표주가를 시가보다 낮은 45만원으로 높이고 투자 의견을 ‘보유’(HOLD)로 제시해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놨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주가수익비율(PBR)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인 0.9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철강주’에서 ‘친환경미래소재’ 등으로 변모해 수익성 대비 기업가치(멀티플) 상향 요인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가치평가(밸류에이션) 방식이 시장가치 변모를 설명하기 힘든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임성준 기자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당신이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MyShop 파트너**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마케팅 통합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건강검진 예약/전용 쇼핑몰 제공

**MyCredit 서비스**  
금융권 최초, 개인사업자 맞춤 신용평가로 소상공인 지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Lead by 신한카드

# 북, 심야에 잇단 미사일 기습 도발…합참 “의도 분석중”

“열병식 예행연습 인원·장비 증가”…‘야간 열병식’ 가능성

군 당국은 북한이 잇달아 새벽과 심야에 미사일 기습 도발을 감행한 의도에 대해 한미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심야나 새벽에 계속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나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근에 새벽이나 심야에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의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55분부터 5분 간 평양 일대에 내부적으로는 ‘전승절’을 앞두고 체제 결속을 위한 일정 수준의 긴장감 조성 의도 등으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오전 3시30분부터 3시46분까지는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22일 오전 4시께는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각각 쌔웠다.

이 실장은 전날 발사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각각 400여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 제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국의 해 추진 잠수함 방한 등에 대한 반발과 내부적으로는 ‘전승절’을 앞두고 체제 결속을 위한 일정 수준의 긴장감 조성 의도 등으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으로 군과 정보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북한은 전승절로 기념)을 계기로 진행할 열병식 예행연습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실장은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정치 일정과 관련해 인원과 장비 식별 등 관련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원이나 장비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그러한 동향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야간 열병식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 김민호 기자



의회 정치 복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與, 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 언급에  
“방탄꼼수·공천협박”

“北 공개투표와 다를 바 없어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기명 투표 선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공천 협박’, ‘방탄 꼼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쌍방을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방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총 313구의 유해가 미국에서 국내로 봉환됐으며, 이 가운데 19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유해 인수식 행사는 신법철 차관과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한미 양측 대표로 하고 이서영 하와이 총영사, 케리 맥케이그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 백성준 기자

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강성 지지층에 ‘수박’으로 찍혀 조리돌림당할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명 투표 전환은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 야당 의원들 소신 투표를 봉쇄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며 “민주당은 책임 정치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버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성실히 이행하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의원 4명이 전날 쌍방을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것을 거론, “이 전 부지사의 실토로 드러난 진실을 다시 뒤집으려는 방탄 방문”이라며 “다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조건을 발동하기 위한 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 송유영 기자

## 하와이에 안치됐던 국군 유해 7위, 70여년 만에 귀환

북이 발굴해 미국에 전달한 3위 포함…장진호 전투 전사자 최임락 일병은 신원 확인

미국 하와이에 안치됐던 국군 6·25 전사자 유해 7위가 7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방부는 26일 미국 하와이 히카와 공군 기지에서 신법철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봉환되는 유해는 대부분 6·25 전쟁 중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들로,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다가 한미 공동감식을 거쳐 국군으로 판정됐다.

이 가운데 3위는 북한에서 발굴 후 미국에 전달받았고, 1위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창설 전 미국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했으며, 나머지 3위는 미 태평양 국립묘지에 안장됐던 6·25 전사자 무



명용사 묘역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군 전사자로 판명됐다.

특히 합경남도 장진에서 수습한 유해 1구는 고(故) 최임락 일병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1931년생인 최임락 일병은 1950년 8월 부산에서 입대해 미 제7사단 카투사로 배

치됐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고인의 형은 국군 제3사단 소속 고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로, 최상락 하사는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

치렀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른 끝에 그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아울러,

# 이화영, 아내가 낸 일부 변호인 해임신고서에 “내 의사 아냐”

본인 미동의 시 해임 효력 없어…아내, 李 향해 “정신 차려야”

최근 쌍방을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 일부를 변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배우자가 제출한 일부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대해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아내 A씨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와 관련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어서 (해임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법정에 들어 오기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해임 건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광 측은 재판 시작 전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동의 없는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단 선임 유지를 밝혔으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오전 재판을 종단하고 이날 오후 2시로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피고인 본인이 직접 변호인단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변호인께서는 변호인 지위를 갖고 있다”며 “현재 원활한 변론이 어려운 상

황이므로 피고인은 (본인의 해임 의견 관련해) 신속하게 조율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오전 중 배우자의 변호인단 해임 신고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오후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청 온 아내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단 해임 신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자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라고 소리쳤다가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발언”이라며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재판부로부터 정식 발언권을 얻은 뒤 “해광은 제가 계약하고 선임한 분들”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단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와 가족들 입장과 반대되게 변호하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만약 (해임 철회) 판단하면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 포기하겠다.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 전 변호인을 통해 “변호사의 입은 곧 이화영 피고인의 말”이라며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밝힌 옥중 서신과 다르게 변호인이 말한 혐의 내용 일부 인정은 사실과 다르다. 제 가족과 본인의 명예를 위해 더 이상 정당한 변론이 힘들 것 같다”며 변호인 해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쌍방을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경기도와 쌍방을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을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40차 공판에서 언급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변복과 관련한 보도가 확산됐고, 사흘만인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편지로 “김 전 회장에게 이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쌍방을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송진영 기자



NC 박석민 - 권희동 - 이명기 - 박민우

검찰, ‘역학조사 방해’ 프로야구

권희동·박석민·이명기 무혐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술자리

를 한 뒤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권희동, 박석민(이상 NC 다이노스)과 이명기(한화 이글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NC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들 3명은 2021년 7월 5~6일 서울 강남 숙소에서 박민우(NC), 일반인 여성 2명과 술을 마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지만, 이후 역학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예방 접종했던 박민우를 제외한 5명이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됐었다.

/ 최준용 기자

## 경찰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남성 긴급체포

디시인사이드에 “26일 여성 20명 살해”…112에 자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연

예인갤러리에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한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이날 오전 1시44분 인천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 윤희근 경찰청장, 새만금잼버리 행사장 안전 점검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전북 부안군 잼버리 활동지에 한시적으로 문을 연 잼버리 경찰서 등을 방문해 인파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 안전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강릉수 전북경찰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과 함께 새만금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 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58개국 4만3천명이 참여한다.

윤 청장은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대회가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윤 기자

##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체 구성…“진상규명 촉구”

승객 유가족 이경구씨가 말았다.

이들은 ▲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 수사 진행 상황 유가족과 공유 ▲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경구 대표는 25일 “모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협의회 공식 발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협의회는 14명의 희생자 유가족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는 버스 탑

두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인재, 중대 시민재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체 등 관련 기관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협의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 박소희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 러, 우크라 동부에 집속탄 공격…아동 1명 사망·7명 부상

다뉴브항 곡물저장소도 드론 공격…루마니아 “식량안보 위협” 규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집속탄 불발탄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저녁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집속탄으로 공격해 어린이 1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당국이 밝혔다.

DPA 통신에 따르면 도네츠크 지역 군 행정 책임자인 파울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코스티안티

니우카 마을의 물가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공격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10세 남자 아동이며, 부상자 중 4명이 어린 이다. 집속탄은 광범위한 지역을 노리기

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불발탄

이 땅에 남아있다가 지뢰처럼 민간인을 살상할 위험이 있는 무기로, 세계 120여 개국이 그 사용을 금지한 국제 협약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집속탄을 반복해서 사용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집속탄을 지원받자 집속탄 사용을 더 늘리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러시아는 이날도 오데사, 다뉴브(두나이) 항구 등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저장소를 겨냥한 공격을 이어 갔다.

러시아는 지난 17일 크림대교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테러라면서 흑해곡물협정 참여를 중단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 항만에 대한 대대적 보복 공습을 1주일째 계속하고 있다.

현지 군 당국에 따르면 24일 흑해 주요 항구도시인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최소 7명이 다쳤다.

오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드

론 일부를 격추했지만, 루마니아 국경에서 가까운 다뉴브강 항구인 레니와 이즈 마일 등은 드론 공습에 피해를 봤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군 당국과 루마니아 언론 등이 전했다.

이호리 플레호우 레니시장은 현지 언론에 곡물 창고 3곳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당시 레니항에 있던 루마니아 선박 6척은 루마니아쪽 강둑으로 대피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최근의 긴장 고조가 흑해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곡물 운송과 세계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러시아의 공격을 비판했다.

그러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절대로 사회 기간시설이나 사원, 교회 등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오데사 등지에 대한 공격의 책임을 부인했다.

/ 권정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1·6 사태 트럼프 재선 중대 변수 유권자 과반 “기소시 사퇴”

잇단 사법 리스크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여론 흐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자행한 1·6 의회난입 사태 및 대선 전복 시도와 관련해 그를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19~20일 등록 유권자 2천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의회난입 사태 책임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매우 혹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7%, 무당층의 47%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1%로 비율이 하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복 시도와 관련해 유죄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유죄라고 반응했고,

36%는 무죄라고 답했다.

또 전체의 2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일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기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대선 경선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도 전체의 55%에 달했다. 반면 45%는 출마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80% 이상이 사퇴에 힘을 실었고, 공화당에서는 10명 중 3명 만이 사퇴 이유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56%는 주가 기소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고, 3분의 2가량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복 시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중인 짱 스미스 특검으로부터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통보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 박병준 기자

## 日외무상 “한중일 협의체 재가동하기로 중국과 의견 일치”



박진 외교부 장관(중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오른쪽),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월 중이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지난 14일(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왕 위원과 회담에서 한중일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상·외교장관 레벨을 포함해서 한중일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는 한중일 정상이 협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협력 방식, 나아가 지역의 여러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중일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일정 등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중국과는 정상과 외교장관이 이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한국과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의

장국인 한국의 대응을 지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국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야시 외무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중일 간의 갈등이 한중일 정상 회의 개최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

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방

류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국제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무시할 정도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중국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류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국제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무시할 정도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중국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슈프림-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 SUPREME GOLD



당신의 취향 슈프림이 되다

## 거센 후폭풍, 혼돈의 이스라엘 前총리 “시민불복종, 내전 상태”



‘사법부 무력화’ 법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위대

베냐민 네타나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가 이른바 ‘사법 정비’ 법안을 끝내 강행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촉발하는 등 이스라엘 대혼란에 휩싸였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전날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 권한 축소 법안 처리를 강행한 후 수 천명이 의회와 대법원, 수도 텔아비브를 지나는 아yalon 고속도로 위 시위대는 이후에도 하살롬 다리, 카풀란 거리 등 텔아비브 곳곳에서 “부끄럽다”는 구호를 외치고 부부젤라와 사이렌

등을 울리며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자 중 한 명인 대니 키털(55)은 “이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그들(시위대)의 권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시위대가 6시간 만에 해산됐으며 경찰을 공격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총 18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 10명이 충돌 과정에서 다쳤다고 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스라엘 중부에서 시위대를 차로 쳐 다치게 한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법안 통과 전부터 의사당과 인근 거주 여당 의원 자택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며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다.

이날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지는 것으로 야당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문종성 기자



# TV홈쇼핑서 굴착기 산다…HD현대인프라, 1.7T 제품 국내 첫 판매

## 레드닷 어워드 수상 미니굴착기…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도 지원

무게가 2t에 육박하는 중장비제품인 굴착기가 국내 최초로 TV홈쇼핑에서 판매된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이달 31일 오전 8시 40분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에서 1.7t급 디벨론 미니굴착기 신제품(DX17Z-7)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TV홈쇼핑에서 굴착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TV홈쇼핑을 활용해 일반 고객에게 친숙하게 건설기계를 선보이고, 디벨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판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송상품 구성은 ▲굴착기 본체 ▲대·중·소 버킷(흙을 담는 바구니 모양 장비) 3종 ▲퀵커플러(작업기구 탈부착 링크)로 이뤄졌고, 기본 공구와 필터가 제공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미니굴착기는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품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은 제품으로, 올해 출시된 디벨론 굴착기 중 가장 작다.

제품은 굴착기 트랙 전폭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1m 이내 공간의 출입이 가능하고, 짧은 회전반경을 갖춰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할 수 있다. 또 200kg급 고중량 균형추를 후방에 장착해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TV홈쇼핑을 통해 선착순 10대를 특별혜택가로 판매한다. 또 3t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과정을 무상으로 수강할 기회를 제공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미니굴착기는 농장, 전원주택 등을 계획 중인 은퇴 전후 고객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TV홈쇼핑 방송은 디벨론 제품의 기술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5월 HD현대오일뱅크의 전국 직영주유소 4곳에서 3.5t 미니굴착기 등을 전시·판매하기도 했다. / 김희창 기자



분당 정자동 교량 보행로 붕괴로 2명 사상

## 성남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원 손배소 제기

경기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 백경미 기자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소송 방침 입장문을 내고 "혹자는 (지은 지)

광고 문의 : 1533-1545

## 네이버-쏘카, 초거대AI 기반 모빌리티 혁신사업 공동추진



모빌리티 혁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네이버 최수연 대표(왼쪽)와 박재욱 쏘카 대표

네이버는 쏘카와 초거대 인공지능(AI)

일 밝혔다.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

테 서비스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25

에 있는 제2사옥 1784에서 최수연 대표이

사와 쏘카의 박재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내달 24일 네이버가 공개할 예정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협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쏘카는 자체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X에 결합해 AI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추천·예약 기능 고도화 등 모빌리티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네이버는 AI·클라우드 기술로 쏘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 네이버클라우드 AI 고객센터 설루션을 활용해 쏘카의

고객센터 운영 경쟁력을 강화하는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쏘카의 모빌리티 서비스 연동을 통해 네이버 지도, 네이버 여행 등의 서비스 사용성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KTX 승차권을 예매하면 출발지나 목적지 주변에서 이용할 쏘카 공유차(카셰어링) 서비스도 바로 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고,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예약·결제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가능하도록 연동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 지도가 갖춘 국내 최대 수준의 POI 데이터와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하는 네이버 내비게이션을 쏘카의 공유차·서비스에 탑재해 쏘카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이동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손진호 기자

NAVER × SOCAR

모빌리티 혁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네이버 최수연 대표(왼쪽)와 박재욱 쏘카 대표

네이버는 쏘카와 초거대 인공지능(AI) 일 밝혔다.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 테 서비스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25

에 있는 제2사옥 1784에서 최수연 대표이

사와 쏘카의 박재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내달 24일 네이버가 공개할 예정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협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쏘카는 자체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X에 결합해 AI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추천·예약 기능 고도화 등 모빌리티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네이버는 AI·클라우드 기술로 쏘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 네이버클라우드 AI 고객센터 설루션을 활용해 쏘카의

Instagram.com/MercedesBenzkr Facebook.com/MercedesBenzKorea Youtube.com/MercedesBenzKorea\_Official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 www.mercedes-benz.co.kr 키카오톡 채널 추가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EQE SUV

###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 3.9km/kWh (도심 4.0km/kWh, 고속도로 3.7km/kWh)  
1회 충전거리 404km, 공차중량 2,540kg, 배터리용량 88.4kWh

EO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 3.8km/kWh (도심 3.9km/kWh, 고속도로 3.6km/kWh)  
1회 충전거리 401km, 공차중량 2,510kg, 배터리용량 88.8kWh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내 집 빨리 사자"…올해 서울 청약 당첨자 60%는 20·30대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59.7%(2천409명 중 1천439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54.4%)보다 약 5.3%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청약 30대 이하 당첨 비율은 2020년 31.0%에 불과

했지만, 2021년 33.3%, 2022년 43.2%로 꾸준히 늘고 있다.

청약 추첨제 비율이 늘고,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빠르게 마련하려는 20·30대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4월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줄고,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 점도 젊은 세대의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부동산인포는 분석했다. 30대 이하 수요자가 아파트 매수에 적극적인 점도 이유로 꼽힌다.

/ 노종윤 기자

## '챗GPT'로 편의점주와 소통 세븐일레븐, AI 챗봇서비스 도입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세븐앱'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연동한 경영주 전용 챗봇 'GPT브니'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돼온 '챗봇 브니'를 개선한 것이다.

GPT브니는 현재 1차 개발 단계로 배달과 피업, 라스트오더(유통기한이 얼마나 않은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 스마트피(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해준다.

세븐일레븐은 약 3개월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점포 운영 전반에 걸친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세븐일레븐은 아울러 가맹 경영주와 점포 관리를 담당하는 본사 직원 간 채팅



방 '브니톡'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안에 고객과 가맹점 간 곧바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객 전용 챗봇 서비스에 '우리동네 상품찾기' 기능을 연동해 고객이 소재지 인근 점포의 재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 고창근 기자



카카오게임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를 정식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아레스는 국산 MMORPG로 보기 드물게 공상과학(SF)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다.

기계 갑옷인 '슈트'를 실시간으로 교체하고, 지상과 공중을 입체적으로 오가며 전투를 펼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다음 달 9일까지 아레스 출석 이벤트를 열며, 공식 카페 가입자 1만 명, 3만 명, 5만 명, 7만 명을 각각 달성을 때마다 아이템도 지급한다.

/ 이민수 기자

# '대기시간 41분' 서울 장애인콜택시, 9월부터 운행 확대

## 대기 30분대로…임차택시·바우처택시로 공급 활성화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9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임차택시 운행을 활성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수요가 급증해 현재 대기시간이 약 41분에 이른다. 하루 이용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3천230건에서 올해 4천50건으로 25.4% 늘었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 수를 늘리고 택시업계와 협업해 장애인 이동 차량을 확충하면서 장애인이동수단 배치와 이동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콜택시 수는 올해 말까지 30대 추가해 692대로 늘리고 2025년까지 총 870대로 확충한다. 이에 더해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력해 '법인 특장택시(장애인콜택시)' 30대를 10월부터 시범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 차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부족한 운전원을 충원하기 위해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투입한다.

비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대신 임차택시, 바우처택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대체 교통수단인 임차택시는 현재 54대에서 월 120대로 늘려 운행한다. 이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분이 미반영된 현재의 대기기준을 상향하고 임차택시 참여 개인택시의 거주지 기준을 수도권까지로 넓힌다. 연령 기준은 68세에서 70세로 완화한다.

바우처택시는 기존 회사 이외에 온다택시 등 플랫폼 업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9월부터는 온다택시 6천 대 참여를 추진해 운행 대수를 현재 1천600대에서 7천 600대로 대폭 늘린다.

바우처택시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이용률을 높인다. 또 바우처택시 배차 요청에 운전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운행 서비스 수준을 증진한다. 바우처택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장애인을 분리해 차를 배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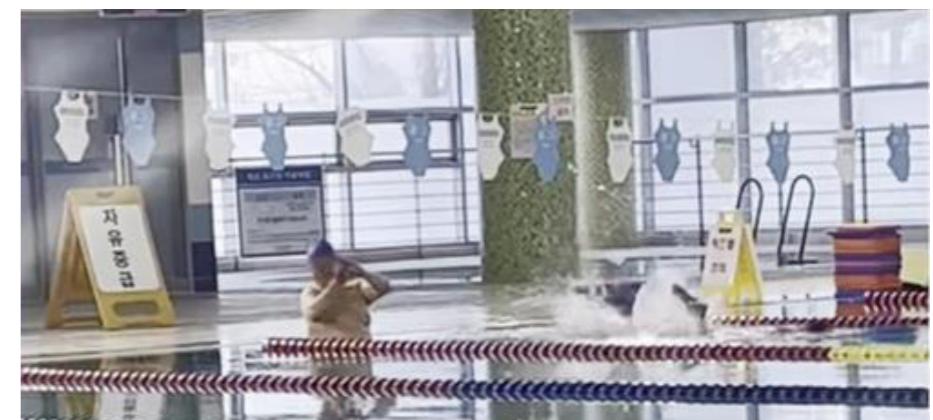
신청 접수처는 회사별 콜센터에서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확대했다.

여가, 관광 등 장애인의 단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연내 휠체어 이용자 2명, 비휠체어 이용자 6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소형버스 2대를 추가 도입해 주말 등 여가 활용, 단체·가족 단위의 수도권 내 관광지 탐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는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수영 강습받는 김경일(왼쪽) 시장과 목진혁 시의원

## 파주시, 황제 수영강습 논란 수영장 10년 만에 지도·점검한다

경기 파주시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을 받았던 수영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10년 만에 한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정스포츠센터를

상대로 재산관리 실태와 근무자 근로 환경, 이용객 안전관리, 시설유지보수 관련 내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이 수영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연 6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점검은 약 10년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권의위원회가 김 시장과 목 의원의 '황제 수영 강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의위원회 발표 뒤 시 자체 감사와 이달 초 인사이동으로 인해 수영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면서 "앞으로 권의위가 지적한 대로 위탁 수영장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실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 "정당현수막 왜 남아있죠?"…전국 첫 강제철거 인천 '주춤'

### 일선 현장 "민형사상 책임 우려…소극 대응할 수밖에"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의 '시 조례 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현장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를 시행한 지 열흘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시내에는 많은 정당현수막이 남아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일선 지자체가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있어도 조례를 직접 개정해 정

하는 분위기도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는 데다 정당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적극적인 철거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계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조례와는 상충한다. 이런 틈에 현재까지 철거된 정당현수막도 대다수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계시 기간(15일)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게시된 사례다.

또 강제 철거보다는 정당이 자진 철거하거나 군·구가 미리 정당 즉 의사로 묻고 철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이달 중순께 연 정당현수막 철거 관련 회의에서도

일선 공무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인천시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도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다.

/ 박정민 기자

## 안산 대부도 '똑버스' 전화로도 호출 가능…콜센터 운영



경기 성남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여름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에 냉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391개 단지의 경비실(초소) 1천600곳이다.

지원 기간은 7~8월 두 달이며, 지원 금액은 한 곳당 월 2만원씩 총 4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공동

주택지원팀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공동주택 90개 단지 1천68개 경비실(초소)에 냉난방기 설치비 5억6천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냉방비 지원이 경비원·미

화원들의 건강한 근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임순호 기자

경기 안산시는 대부분에서 운행 중인 수용답형 교통체계(DRT) '똑버스'를 전화로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똑타' 앱을 설치한 뒤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까운 정류장에 배차된다. 농어촌 지역인 안산 대부도에도 지난 3월 1일 도입돼 총 6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스마트 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이 앱을 통해 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가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등에 제안해 전화로도 호출할 수 있는 유선콜 서비스 도입을 이끌었다.

경기교통공사가 사전테스트를 마치고 이날부터 전용 콜센터(☎1688-0181)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호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 백현중 기자

## 계획에 없던 질병, 사고에도

## 당신을 지켜주는 현대해상

계획에 없던 질병, 사고에도  
당신을 지켜주는 현대해상

당신 인생에 꼭 필요한 플랜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 제주 제2공항 의견제출 임박...“주민투표 요구할 마지막 기회”

제2공항 반대측, 오늘 오후 도청 앞 ‘주민투표 촉구 도민대회’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공항에서 족발된 도민사회의 오랜 갈등과 반목을 매듭지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의 이번 의견 제출이 중요한 이유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기회이자 제2공항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피켓 시위 벌이는 시민단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민회의는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하지 않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약속과 오영훈

지사의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공약이 맞닿은 유일한 방법은 주민투표고, 도민 70% 이상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민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제2공항은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도민대회를 연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제주도의 의견 제출 시기는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포함한 제2공항 관련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박도영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현안 사업 건의

## 이강덕 시장, 환경부 장관에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 건의

### 수산물 소비촉진 팔 걷었다

#### 창원시, 대형 행사·캠페인 추진

경남 창원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직접적인 피해 호소가 이어지자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를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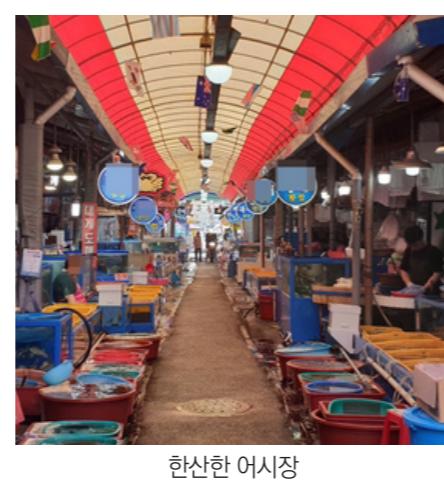
바다를 낀 창원시는 미더덕, 피조개 등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창원시는 오는 26일에는 창원광장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연다. 8월 중에는 마산어시장 입구와 진해구 3호광장 교차로에서도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는 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28일에는 창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지역 특산물인 피조개·자숙홍합·건멸치를 활용한 점심메뉴(800인분)를 제공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수산물



한산한 어시장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창원시는 나아가 시청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먹는 날(수산물데이)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수협과 민간기업 등과

함께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9월에는 진해만 상상수산물축제를, 11월에는 창원 홍합축제를 열고 시설회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울 계획이다. 창원시는 초청가수 공연 등이 주를 이룬 기존 축제들과는 달리 다가오는 축제에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시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산물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알려 소비 위축과 시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민우 기자

## “여름엔 부산 바다로”…내달 1~6일 부산바다축제

부산바다축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6일간 부산 해운대수욕장과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려 다채로운 불거리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8월 1~6일 다대포·해운대 수욕장 일대에서 제27회 부산바다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8월 1일 부산 줌바다(줌바 댄스 공연), 2일 해변살사댄스 페스티벌, 3일 장애인 한바다축제와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4일 다대포 포크락(樂) 페스티벌을 각각 개최한다.

이어 8월 5일 저녁에는 폴킴, 소란, 제이리벳을 초청한 가운데 원더풀 콘서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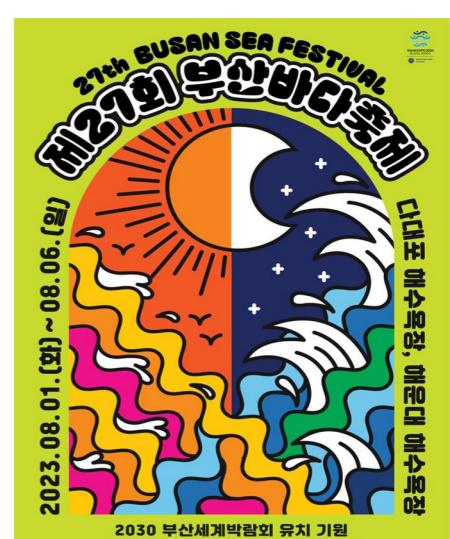
개최하고 20분가량 화려한 불꽃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8월 4일 저녁 대규모 인공풀장을 활용한 스탠딩 공연인 ‘나이트 폴 파티’를 연다.

나이트 폴 파티에는 힙합 뮤지션 스윙스, 한요한, 비와이, 애쉬아일랜드, 태버가 출연해 힙합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 밖에도 부산바다축제 기간에 거리 공연(버스킹)과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인 ‘선셋 서핑’, ‘비치 요가’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부산바다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홈



페이지(www.b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권현준 기자

## “자연과 함께 춤을 즐기다”…제1회 제주국제무용제 개막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춤을 즐기는 축제인 ‘제주 국제무용제’가 개막했다. 제주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제1회 제주국제무용제가 24일 오후 제주 탑동해변공연장에서 막을 올렸다.

‘춤추는 섬 제주’를 주제로 한 제주국제무용제의 개막공연은 제주도립무용단의 ‘제주의 천고’, 빛마루 무용단의 ‘해변의 남자’ 등으로 꾸려졌다. 전날 펼쳐진 전야제에서는 ‘이어도사나’와 ‘오돌포기’ 등 제주 토속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무용이 만나는 공연을 선보였다.

무용제는 오는 30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목관아 등에서 제주의 유일한 공립무용단인 제주도립무용단의 ‘구음검무’와 ‘부서지는 파랑’, 안무가 김한결이

바다 깊은 곳에 닿은 해녀의 모습을 안무한 ‘청음’, 빛마루 무용단의 ‘해변의 남자’ 등을 선보인다.

또 오스트리아 빈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전 우루과이 국립발레단, 광주시립발레단 무용수들의 화려한 춤이 갈라 공연을 통해 무대를 수놓는다.

이외에도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무용 공연인 ‘길 위의 춤’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올레길 코스가 포함된 장소에서 펼쳐져 눈길을 끈다.

제주 올레길 6코스 ‘마음빛그리미 갤러리’ 앞에서 출발, 위미 해변의 등대, 위미 포구 어선 집하장, 위미 초등학교 옆 동네를 거치면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공연을 펼치고 관객들과 함께 나눔 춤 공연으로 마무리한다.

폐막공연에서는 유명 국제 축제와의 국제 댄스 교류 프로그램으로 고블린파티의 작품 ‘불시착’과 나니댄스프로젝트

안무가 육하윤의 작품 ‘토크 어바웃 데스’(Talk about daeth) 등을 선보인다.

이번 무용제에는 독일, 몽골, 스위스,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한국 등 8개국의 48개 단체가 참여해 49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 흥지민 기자

“해외에서는 마음이 놓여야 잘 다닐 수 있으니까 U+안심로밍은 필수죠~”

예전엔 해외나갈 때 유심만 생각했었는데, 해외에서 인증 필요할 때 문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황했던 후로는 꼭 U+안심로밍 해갑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지 모를 만큼 데이터 속도, 품질, 문자도 완벽하고, 시간대당 기간만 신청하면 무제한 편하게 쓸 수 있어 좋아요. 공항 갈 때 신청도 카톡으로 되니까 말 그대로 안심로밍이죠!”

‘유플러스 10년 차 고객 김병재님’

이런 생각, 김병재님의  
**WHY NOT?**

유플러스 안심로밍



QR코드 스캔하고 김병재님의  
와이드 스토리 더 보러 가기

# “청주 수재민 아픔 달래자”…군인도 예술인도 수해복구 구슬땀

## 수해 현장 곳곳 자원봉사 이어져…수재의연금품도 속속 담지

청주 수해 현장에서 수재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나누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집중된 기록적인 폭우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말고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현재 일반주택 침수 226건 및 파손 109건, 공동주택 침수 12건, 도로 침수 543건, 농지 침수 571건, 축사 침수 102건, 토사 유출 665건, 하천 유실 299건, 공장 침수 38건 등 총 3천497건의 피해가 났다. 지난주 비가 그치면서 청주시 주도의 수해복구가 본격화해 지금까지 72%가량 복구가 진행됐다.

수재민들을 돋기 위한 각계각층의 자원봉사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상당구기업인협의회 회원 20명은 미원면 소



경내면 수해 상가 드는 자원봉사자들

재 공장을 찾아 기계 및 제품 세척, 토사 제거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예총 충북연합회 청주지회 소속 지역예술인들과 청주시 문화예술과 직원

특전사와 17전투비행단, 37사단 등 소속 장병 총 638명은 오송읍 호계리, 궁평리, 서평리 등에서 ‘복구 작전’을 수행했다. 청주시청은 이날까지 연인원 1만4천 109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피해 복구 활동과 피해 조사, 시설점검 등을 해 왔다.

수재의연금품도 속속 담지하고 있다. 이날 호반건설(1억원), HDC현대산업개발(1억원), 동일토건(5천만원), 다농마트(3천만원) 등 청주시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4개 업체(500만원) 등이 수재의연금품 또는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의 도움으로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해를 본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빠짐없이 읍면동에 피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경준 기자

## ‘레저 구매하면 숙박비 할인’…강원, 레저 4종 챌린지 시동

### 폐광지역 래프팅·365세이프타운·곤돌라·케이블카 탑승 대상

강원관광재단은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오는 28일부터 ‘레저 4종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원 레저 4종 챌린지는 폐광지역인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의 래프팅, 365세이프타운, 곤돌라, 케이블카 탑승 등의 레저 이용권을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구매할 경우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1개 지역 인증부터 총 4개 지역까지 인증하면 그에 따른 경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숙박 할인쿠폰은 1인당 최대 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개 지역을 모두 인증하면 1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총 5천 박의 숙박 할인쿠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강원 레저 4종 챌린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28일부터 누리집(gw4leisure.kr)이나 여기어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현 지역특화팀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숙박 레저 연계 할인 캠페인으로 소비자들의 여행 경비 부담을 덜고, 폐광지역이 대한민국 레저 관광 1번지로 각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 광주 상인연합회 “복합쇼핑몰 반대에도 귀 기울여야”



광주 상인연합회는 24일 “광주시는 상권 몰락을 야기할 가능성 있는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상인들과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35개 상인회장으로 구성된 연

합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은 ‘빨대 효과’를 불러일으켜 원거리 상권까지 몰락시킬 위험이 크다”며 “매출, 점포

감소는 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의 계획에 따라 신계백화점 확장 등 쇼핑몰 3곳은 도심과 그 인근에 입점해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쇼핑몰 입점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 대응 방안을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광주신세계는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 옛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쳐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달 도시관리 계획 입안을 신청했다.

/ 김강우 기자

## 강원 고성서 DMZ 동서횡단 통일대장정 출정식 열려

정전 70주년을 맞아 ‘DMZ 동서횡단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출정식’이 24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타워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주관하고 통일부 등 50여개 단체와 공공기관에서 후원해 지난 5월 20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3 통일대장정’ 행사의 일환으로 강원지역 DMZ 동서횡단을 시작하면서 열린 행사다.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브라질, 프랑스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자전거 종주단원과 150여명의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분단 극복의 의지를 전한다는 취지로 휴전선 철조망을 끊는 퍼포먼스가



강원 DMZ동서횡단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출정식

열렸다.

이 퍼포먼스는 2020년부터 열리고 있는 행사로 이번에는 뱃줄로 묶인 대형 한반도 모형 그림을 가위로 자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행사 참가자들이 만세 삼창과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 합창에 이어 종주가 진행됐다.

이날 고성은 출발한 자전거 종주단은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경기 연천을 거쳐 27일 파주 임진각에서 종주 완료와 통일 기원식을 할 예정이다.

/ 오진욱 기자

###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증형 계약금액 공시기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전 성장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합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작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 연 0.18%, 3억 이상 : 연 0.15%(장기계약 할인 및 디아렉트 계약의 수수료 등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자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우리금융그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상속, 증여, 세금?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

# 우리에게 신탁하세요

고객을 위한 전문가들의 종합컨설팅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 마음을 기록하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상속재산 배분	걱정 없는 증여플랜	고령사회 대비 자산관리	사회적 책임 실현	생애 종합자산관리
신탁된 재산을 고객님의 의지대로 상속 정확하게 집행	재산 증여 후에도 일정 기간 통제 가능	향후 치매·질병 발생 시에도 안전한 자산관리 가능	장애인시광신탁, 우리나눔신탁 등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및 최적의 플랜 제시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이익 또는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고객님께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수수료, 중도해지, 운용방법, 계약종료 등), 고객님은 신탁계약에 있어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수수료, 중도해지, 계약종료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는 신탁재산(운용자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신탁 상품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4515(2023.05.24~2023.12.31)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038호 (2023-06-07 ~ 2024-06-06)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여행 환전 어땠어? 좋았어!

NH농협은행의 환전 서비스와 함께  
소중한 휴가를 더 완벽하게



## NH농협은행 여름 환전·송금 페스티벌

페스티벌 기간 2023년 7월 7일 ~ 9월 7일

세븐세븐세븐

777

환전·송금의  
행운을 찾아서

**EVENT 1** NH을원뱅크 「알뜰!환전」에서 최고 90% 환율우대 받고 1,000명 경품 당첨의 기회까지  
올여름, 더블 혜택으로 드리는 시원한 행운을 받으세요



1등 / 3명  
스파 마사지 바우처  
50만 원 상당



2등 / 5명  
항공 모바일 금액권  
30만 원권



3등 / 15명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4등 / 200명  
간편결제 서비스 포인트  
2만 원권



5등 / 777명  
생활용품점 상품권  
5천 원권

자세히 보기



### EVENT 2

개인 고객 777명에게 NH포인트 1만점  
거래외국환은행 신규 지정 등록하고  
건당 미화 \$500 상당액 이상  
해외 송금거래 원료 시

### EVENT 3

모든 통화 환율우대 77%  
영업점 창구에서 해외송금 거래하는  
개인 고객 (일반 당별송금에 한함)

### EVENT 4

와이파이도시락 15% 할인  
환전·해외송금 거래하는 모든 개인 고객

// 참여 대상 NH을원뱅크 「알뜰!환전」으로 건당 미화 \$500 상당액 이상 환전한 개인고객

// EVENT 1, 2 참여 방법 NH을원뱅크, NH스마트뱅킹 이벤트 페이지 내 응모하기

\*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을원뱅크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뜰!환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안내장 작성일 현재 기준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벤트 당첨자 중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 오류, 수령거절 등의 고객사유로 1개월 이상 경품 미수령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이벤트는 NH농협은행의 시점으로 변경 또는 충돌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시점상 동일금액과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인 1회 가능하며, 이벤트 1과 2는 중복 당첨 가능합니다. \* 본 이벤트는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며, 실물 경품 발송을 위해 당첨자의 성명,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가 쭉챌리블루에 제공되며, 경품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즉시 폐기됩니다. \* 모바일 쿠폰의 발송을 위해 당첨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가 쭉챌리블루, 씽케이트알파에 제공되며, 쿠폰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즉시 폐기됩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음모시 일련한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됩니다. \* 티웨이항공 금액권은 [모바일]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 발송되며, 카카오톡 계정이 없는 경우 발송이 불가합니다. 발신인 쭉챌리블루 \* 5만 원 초과 경품 수령 시 제세공과금은 NH농협은행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대상 고객님의 기타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제세공과금 신고를 위한 절차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 모바일쿠폰은 이벤트 기간 종료 후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발송됩니다.

준법감사인 심의일 : 2023.07.04~2024.06.3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 김우민, 자유형 800M 한국新…박태환의 기록 11년 만에 경신

김우민(21·강원도청)이 남자 자유형 800m에서 '박태환의 한국기록'을 넘어섰다.

김우민은 25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メッセ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800m 예선 2조에서 7분47초69로 역영해 조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록도 바꿔놨다. 종전 남자 자유형 800m 한국기록은 박태환이 2012년 8월 런던올림픽에서 세운 한국 기록 7분49초93다. 김우민은 박태환의 기록을 2초24초를 깨쳤다.

박태환의 자유형 800m 기록은 런던 올림픽 1,500m 경기 중 측정한 '800m 구간



출발 준비하는 김우민

기록'이다. 공식 800m 경기였다면 박태환이 기록을 더 단축했을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김우민 기록의 가치는 줄지 않거나 기록을 넘어섰다는 상징적인 의

미도 크다.

김우민은 지난 6월 광주수영선수권에서 7분49초97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한 달 만에 자신의 기록을 2초28 단축하며 한국신기록까지 세웠다.

김우민은 이번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에서도 예선(3분44초52)과 결승(3분43초92)에서 두 번 연속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다. 결승에서는 5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6위)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섰다.

후쿠오카 대회를 통해 김우민은 한국 남자 수영 중장거리 간판선수의 입지를 굳혔고, 세계 중심부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 최준용 기자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 류현진의 복귀전은 8월로

#### 한 차례 시뮬레이션 게임 치를 예정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7월 말이 아닌 8월 초에 빅리그 복귀전을 치를 전망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존 슈나이더 감독은 25일(한국시간) MLB닷컴, 스포츠넷 캐나다 등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류현진이 주말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 등판하지 않을 것 같다"며 "대신 한 차례 시뮬레이션 게임에 등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야구팬들이 기대했던 7월 29일 오타니 쇼헤이(에인절스)와 류현진의 선발 맞대결도 불발됐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거를 상대로 '실전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 번 치른 뒤, 빅리그 복귀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류현진은 지난해 6월 19일 왼쪽 팔꿈치 인대 점합 수술을 받고, 길고 외로운 재활을 했다. 재활은 거의 끝났다.

류현진은 5월 불펜파칭, 6월 라이브 피칭을 예정대로 소화했고, 7월에는 마이너 리그에서 네 차례 실전 등판을 치렀다.

지난 22일에는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3안타(2홈런)와 볼넷 1개를 내주고 2실점 했다. 삼진은 5개를 잡았다.

수술 후 가장 많은 85개를 던진 류현진은 직구 구속도 최고 시속 90.8마일(약 146km)까지 끌어 올렸다.

토론토는 류현진과 25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부터 동행하기로 했다. 애초 현지 매체는 "류현진이 29~31일 애너하임 에이저스스타디움에서 벌이는 예

인جل스와의 3연전 중 등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토론토는 다저스와 25~27일 3연전을 벌인 후 28일 하루를 쉬고서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7연전을 벌인다.

현지 언론은 류현진이 17연전의 첫머리에 등판하면 토론토 선발 로테이션에 힘을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토론토는 류현진의 시뮬레이션 게임 등판을 예고하며 복귀전 시점을 늦췄다.

스포츠넷 캐나다는 "토론토는 17연전을 벌이는 중간에, 류현진의 복귀전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새로운 전망을 했다.

스포츠넷 캐나다의 벤 니콜슨-스미스 기자는 트위터에 류현진의 복귀가 늦춰진 배경을 "만원 관중이 들어갈 오타니의 선발 등판 경기에 복귀전을 치르면 류현진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류현진은 17연전 중간에 선발로 투입하는 게 팀 선발로 테이크아웃되는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3년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류현진은 빅리그에서 개인 통산 175경기 75승 45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7을 올렸다.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하는 동안 류현진의 승리 시계는 13개월 동안 멈췄다.

승리 시계를 다시 돌릴 시점을 조금 늦춰졌다.

/ 신재영 기자

## 셀틱, 양현준·권혁규 입단 발표…오현규와 '한국 트리오' 완성



셀틱 입단한 양현준



권혁규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약하던 공격수 양현준(21)과 미드필더 권혁규(22)가 나란히 스코틀랜드 명문 구단 셀틱 유니폼을 입었다.

셀틱 구단은 24일(현지시간) 양현준과 권혁규의 영입을 발표했다.

두 선수 모두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이적료는 셀틱에서 공개하지 않았으나 양현준의 경우 전 소속팀인 K리그1 강원FC에서 앞서 이적을 발표하며 250만 유로(약 35억4천만원)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혁규는 100만 유로(약 14억2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셀틱엔 올해 1월 K리그1 수원 삼성에서 옮겨 간 공격수 오현규(22)가 이미 활약하고 있으며 양현준과 권혁규가 가세해 이번 시즌 세 명의 한국 선수가 함께하게 됐다.

2021시즌 강원에서 프로 데뷔한 양현준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36경기에서 8골 4도움을 올리며 강원의 핵심 공격수로 맹활약했다.

지난해 7월 토트넘(잉글랜드)의 방한 경기에 팀 K리그의 일원으로 나서 변득이는 모습으로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지난 해 말엔 K리그1과 대한축구협회 영플레이어상을 훔쓰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

다.

이번 시즌엔 이적에 앞서 리그 21경기에 출전해 1골 1도움을 올렸다.

양현준은 "셀틱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 새로운 팀원들을 만나고 함께 훈련하는 것이 기대된다"며 "오현규에게서 셀틱과 팬들의 좋은 점을 이미 들었다.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 앞에서 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유스 출신인 권혁규는 군 복무를 위해 김천상무에서 뛴 것을 제외하면 2019년 K리그 데뷔 이후 부산에서만 뛰었다.

K리그 통산 기록은 76경기 3골 2도움이다.

연령별 대표를 두루 거친 그는 좋은 체격과 빠른 발을 바탕에 발기술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권혁규는 부산 유스 출신으로 부산에서 유럽 무대에 직행한 첫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그는 "스코틀랜드 챔피언에 합류하게 된 건 내게 큰 이적이다. 감독님, 선수들과 함께하게 돼 기대된다"며 셀틱은 이미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하며, 한국 선수가 세 명이 된 만큼 더 큰 응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준호 기자

## 고진영,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163주째 유지'



고진영이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기간을 163주로 늘렸다. 고진영은 25일자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2019년 4월 처음 세계 1위에 올랐던 고진영은 이후 2019년 7월, 2021년 10월, 2022년 1월, 올해 5월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지난달 27일 순위에서는 세계 1위 기간을 159주로 늘리며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158주를 뛰어넘는 역대 최장 기간 1위 신기록을 작성했고, 이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도 넬리 코다(미국·7.51점)로 그대로였는데, 고진영(7.74점)과의 랭킹 포인트 격차는 지난주 0.02점에서 0.23점으로 다소 늘었다.

고진영 외에 한국 선수로는 김효주가 8위를 지켜 텁10에 이름을 올렸다.

23일까지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음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합작한 사이언 나이트(미국)는 39위를 유지했고, 엘리자베스 소콜(미국)은 219위로 9계단 떨어졌다.

/ 임성희 기자

권혁규는 2010년 유로(약 14억2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현진은 5월 불펜파칭, 6월 라이브 피칭을 예정대로 소화했고, 7월에는 마이너 리그에서 네 차례 실전 등판을 치렀다. 지난 22일에는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3안타(2홈런)와 볼넷 1개를 내주고 2실점 했다. 삼진은 5개를 잡았다.

수술 후 가장 많은 85개를 던진 류현진은 직구 구속도 최고 시속 90.8마일(약 146km)까지 끌어 올렸다.

토론토는 류현진과 25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부터 동행하기로 했다. 애초 현지 매체는 "류현진이 29~31일 애너하임 에이저스스타디움에서 벌이는 예

/ 신재영 기자

## 제4회 新 송도 해변 축제

2023. 7. 29.(토) ~ 8. 6.(일) / 9일간

송도 달빛공원  
(송도국제교~컨벤시아교 사이)

주최 주관

Better life  
Yeongsu  
연수구

연수문화재단

후원

인천광역시

KOVEA

## 서머송으로 돌아온 오마이걸 “우리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

6인조로 미니 9집 ‘골든 아워글라스’ 발표…미미 등 개별 활동도 활발

“우리 손으로 직접 모래시계를 뒤집어 서 오마이걸의 빛나는 순간, 즉 ‘골든 타임’을 만들고 싶다는 다짐을 읊반 제목에 담았어요. 저희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룹 오마이걸이 1년 4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24일 미니 9집 ‘골든 아워글라스’(Golden Hourglass)를 발매한 오마이걸은 이날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오마이걸이 보여줄 수 있는 여름의 모든 것을 담은 음반”이라고 소개했다.

미니 9집은 오마이걸이 지난해 정규 2집 ‘리얼 러브’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음반이다.

타이틀곡 ‘여름이 들려’는 기다렸던 여름이 온 듯한 설렘을 표현한 곡으로 여름 분위기가 담긴 오마이걸 표 ‘서머송’이다. 청량한 고음과 감각적인 템pi 돋보이는 노래로 래퍼 미미가 작사에 참여했다.

미미는 “이렇게 대놓고 여름을 겨냥



믿고 듣는 오마이걸

한 서머송은 처음”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이 노래를 들으면 여름을 추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음반에는 데뷔 8주년을 기념해 멤버 전원이 자작한 팬 송 ‘미라클’(Miracle)도 담겼다. 8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해 준 팬덤 ‘미라클’을 향한 마음을 담았다.

멤버 승희는 이 곡에 대해 “늘 하고 싶었던 작은 소원이었다”며 “가사를 쓰며 팬들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겪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평크 기반의 댄스 팝 ‘셀러 브레이트’(Celebrate)를 비롯해 ‘내 타임’, ‘더티 루드리’(Dirty Laundry), ‘파라다이스’ 등 6곡이 수록됐다.

2015년 데뷔한 오마이걸은 활동 4년 만인 2019년 경연 프로그램 ‘퀸덤’에서 실력파 그룹으로 주목받으며 ‘대기만성형 아이돌’이란 수식어를 얻었다.

이어 ‘살짝 설렜어’, ‘롤핀’, ‘던 던 댄스’ 등의 곡을 잇달아 흥행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개별 멤버들이 드라마, 예능, 솔로 음반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중 tvN 예능 ‘뽕뽕 지구오락실’에서의 활약으로 큰 사랑을 받은 미미는 “예능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그룹 활동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로 준비했다”며 “오마이걸도 그만큼 더 사랑해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걸은 지난해 멤버 지호가 전속 계약 만료로 탈퇴하고 6인조로 개편해 돌아왔다.

6명의 멤버가 소속사와 재계약을 맺으며 아이돌 그룹 ‘마의 7년’을 비교적 무사히 넘긴 오마이걸은 “그룹으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멤버들의 마음이 모여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많은 분이 기대하는 오마이걸의 밝고 청량한 모습과 한 걸음 더 성장한 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이 기대되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효정)

/ 오윤주 기자

## 손석구, ‘가짜연기’ 발언 지적한 선배 남명렬에 손편지 사과

연극 ‘나무 위의 군대’ 간담회 중 언급…“남명렬 연극 보러 오기로”



연극 ‘나무 위의 군대’ 배우 손석구

배우 손석구(40)가 최근 자신의 ‘가짜연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를 “오만하다”고 지적한 선배 배우 남명렬(64)에게 손편지를 써 사과했다고 밝혔다.

손석구는 지난 23일 JTBC 뉴스룸에 나와 “(남명렬) 선배님께 손 편지를 써서 사과했다”며 “선배님도 보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답장을 주셨다. 연극도 보러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구는 자신의 발언 배경에 대해 “연기를 처음 시작했던 10여년 전 간혹 한 가지의 정형화된 연기를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에 나의 응출함과 고집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 같다”며 “너무 하나의 예시와 평소 배우 친구들과 쉽게 내뱉는 ‘왜 이렇게 가짜 연기를 하냐’ 이런 것

들이 섞이면서 오해를 살 만한 문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극 ‘나무 위의 군대’에 출연하는 손석구는 지난달 27일 이 연극의 기자간담회

에서 과거 연극 무대에 서던 때의 상황에 관해 설명하던 중 ‘가짜 연기’라고 언급했다.

당시 손석구는 “사랑을 속삭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를 붙여주든지 해야지 가짜연기를 왜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그래서 그만두고 영화 쪽으로 갔다. 다시 연극을 하면서 내가 하는 연기 스타일이 연극에서도 되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남명렬은 간담회가 끝나고 2주가량 뒤인 이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석구의 이 발언이 담긴 기사를 올리고 “하하하, 그저 웃는다. 그 오만함이란”이라고 꼬집었다.

/ 김성운 기자

## BTS 정국, 빌보드 ‘핫 100’ 1위에 “더 위로 가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25일 공식 솔로 데뷔곡 ‘세븐’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더 위로 가자”고 소감을 밝혔다. 정국은 자신의 ‘핫 100’ 1위 진입이 공개된 이후 이날 오전 4시 16분께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이같이 적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매일 ‘세븐’을 사랑해 주신 전 세계 모든 아미(방탄소년단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남겼다. 정국의 ‘세븐’은 K팝 솔로 가수 사상 같은 팀 멤버 지민에 이어 두 번째로 ‘핫 100’ 1위 진입을 달성했다.

/ 남윤희 기자



영화 ‘밀수’ 속 김혜수

## 류승완 감독 신작 ‘밀수’ 개봉 하루 전 17만명 예매

류승완 감독의 신작 ‘밀수’가 개봉 하루 전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 25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밀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예매율 36.1%, 예매 관객 수 16만9천여 명을 기록했다.

예매율 11.7%(예매 관객 수 5만4천여 명)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미션 임파서블 7’)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예매율 순위에서 정상에 올랐다.

‘밀수’는 지난 23일 오전 처음으로 예매율 1위를 기록한 이후 사흘째 순위를 지키는 중이다.

이 영화는 을여름 나오는 한국 대작 4편 중 가장 처음인 오는 26일 개봉한다.

1970년대 가장의 바닷가 도시 군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녀들의 밀수 범죄를 다룬 작품이다.

/ 최영찬 기자

## ‘큐피드’ 프로듀서 안성일, 학력 위조 시인…“정정하겠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두고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가 학력 및 경력 위조 혐의를 시인했다.

안 대표는 25일 “학력, 이력 관련한 내용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확인됐고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정정 조치하겠다”

이에 대해 한 음악 투자 전문사 및 연예 기획사 재직 이력도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오전 안 대표의 포털사이트 프로필에는 해당 학력과 이력이 삭제된 상태다.

/ 권영민 기자

##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http://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포항

포항의 맛

## 10대

1味

모리국수

2味

해신탕

3味

영일대 조개구이

4味

동ぶり른막회

5味

와메기

6味

구룡포대게

7味

포항초비빔밥

8味

소머리국수

9味

불고기

10味

아구탕



# 신한알파로 자산이 알파만파



## 알아서 챙겨주는 투자메이트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3.0

- 다른 증권사의 보유종목도 편하게 관리하고
- 투자자들의 매매 정보도 한눈에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국가별 상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285호 (2023-06-26 ~ 2024-05-31)

신한투자증권